



NEWS ... 에덴뉴스

분당교회 공연



9월7일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에서는 사랑이 있는 음악회가 열렸다. 바로 분당교회 찬양대가 준비한 특별한 찬양을 환우를 위해 마음을 다해 선보인 시간으로 감동과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었다. 김선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에서 찬양대원들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여 준비한 곡들을 마음을 다해 찬양했고 듣는 환우들은 감동을 호응으로 표현했다. 특히 뇌수막염으로 에덴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박광호 지휘자의 시련을 딛고 일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듣는 모든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 주었다.

에덴요양병원 가을운동회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은 10월13일(일) 병원인근 기양 초등학교에서 직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운동회를 열었다. 이번 가을운동회는 신안순총무과장의 사회 오신영 진행위원장의 지도로 시작되었다. 박종기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운동장에 걸린 만국기를 보니 초등학교생이 된 기분"이라며 "오늘하루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고 없는 하루를 당부했다. 이어 장창근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정재명. 이윤정직원의 선수선서로 행사는 막이 올랐다. 선수행진에 이어 남태희웃음치료사 외 8명의 직원이 펼치는 에어로빅은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어 진행된 오전경기는 신발날리기, 마대릴레이, 플라 우프, 지네발릴레이, 큰공굴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 될 때마다 청. 백팀은 우승을 위해 경기에 맞는 우수한 선수들을 출전시켰고 청팀이 10점 앞선 가운데 오전경기를 마무리했다. 선수들은 병원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에는 발야구, 피구, 계주 등 단체경기 위주로의 경기가 이어진 가운데 최종 805점으로 청팀이 우승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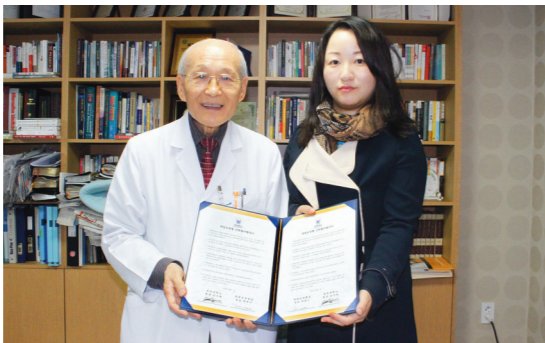
성경통신학교 졸업식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과 에덴병원교회(담임목사 오

신영)는 지난10월25일 예언의소리 박덕진목사를 초청하여 성경통신학교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에덴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에덴병원교회는 노후보장, 환우 직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권장되어 오던 성경통신학교 공부운동이 결실을 맺어 건강의길 118명 오늘의신앙 18명 행복복간정 4명 다니엘연구 3명, 요한계시록 2명 등 총145명이 수료와 졸업하였다. 특히 이규호, 이석준장로는 다섯과목을 모두 공부하여 영예의 졸업장과 기념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북대학 협력체결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은 제2기 암학교를 개강했다. 암 치료에 대한 로드맵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을 위한 암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준비된 암학교 2기는 1학기(10월23일) 암 치료 기초교육, 2학기(12월11일) 암 수술 항암치료 시 면역 부작용관리, 3학기(2014년2월12일) 암 재발방지방지 관리 등 총 3학기를 진행한다.

명사 특별초청특강 진행



남양주시가 후원하여 개최한 명사특강 행사가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에서 11월29일 개최됐다. 이번 명사특별초청특강에서는 현재 사단법인 사회공헌 다사랑 월드 이사장이 며 1974년 소위로 입관한 이후 전투조종사로서 33년간 2300시간 이상을 하늘에서 보낸 이영하이사장이 강의를 맡아 단에 올랐다. 이 이사장은 "푸른창공에서 배운 소통리더십"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소통의 부족이라며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로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과 격려의 말을 소통의 첫출발로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영하 예비역 공군 중장은 공군사관학교 22기로 공군본부 참모차장과 공군교육사령관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무관으로 군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제7회 추계문학의 밤



제7회 추계 문학의 밤

명수정 명창의 흥겨운 우리가락이 흥겨움을 더하고 환우들로 구성된 중창단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막이 오른 제7회 추계 문학의 밤 행사가 에덴요양병원(병원장 박종기) 대강당에서 11월6일 개최됐다. 병원환우 직원을 비롯해 남양주 인근에서 병원을 찾은 내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지훈, 윤정성, 직원과 정찬형, 유경자환우에 이어 남양주시인협회 황라현회원과 헤어포럼 김국애원장이 출연해 각자의 자작시를 낭송했다. 2부에서는 신창근장로님 부부의 섹스폰이 연주되고 "가는세월"을 통해 인기가 높은 서유석 가수가 특별출연해 음악치료로 분위기를 달구었다. 3부는 조진호 마석역장이 서정윤시인의 홀로 서기, 이상구 남양주신문기자가 문량란의 희망가를 각각 애송시로 준비해 낭송하고 4부는 유상수, 유종상 환우가 에덴에서의 삶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진정한 치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이영광 조리계장은 특유의 목소리로 My Way를 불러 청중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문학치료반은 원귀옥강사를 중심으로 문학에 관심있는 환우들이 매주 금요일 정규적인 모임 을 갖고 있으며 10여명의 환우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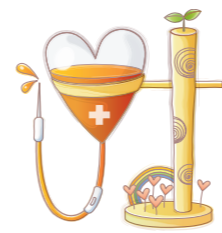
인도에 의료선교단 파견



에덴병원교회(담임 오신영목사)는 12월 2~10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무짜라 지역에 의료선교단(14명)을 파견하였다. 의료진과 직원으로 구성된 선교단은 김준식 선교사(자비랑)와 안드라프라데시주 남부합회와 협력하여 의료 봉사과 위생교육 및 전도회(강사 김현철 목사)와 성경학교를 개최하였다. 의료 봉사를 통하여 600여명의 환자가 초음파 검진과 약 처방을 받았으며 1,000여명에 주민에게 구충제와 영양제를 제공하였고 기본 위생교육도 실시하였다. 전도회에는 평균 600여 명(안식일에는 1,100명)이 참석하여 28명이 침례를 받았다. 또한 에덴병원교회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남부합회소속 5개의 지역교회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후원금도 지원하여 일시적인 지원과 방편으로 그치지 않고 후속 선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전도 기간 동안 단원들은 이벤트(한복배선소, 태권도시범, 악기연주, 음악회)를 기획하여 선보였는데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현지에서 활동중인 김준식 선교사는 에덴병원교회 의료선교단의 이번 선교활동은 선교사로 활동하는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한국인으로서의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회였다고 감사사를 표현했다. 이번 의료선교봉사는 사랑으로 치료하고, 선교하며, 교육하는 에덴요양병원의 사명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고 단원들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에덴병원교회는 2014년에도 해외의료선교 계획을 추진중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러시아 하브롭스크교회와 협력하여 선교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지난 38호 에덴뉴스 기사 중 진선식 회장 홍보대사 위촉을 "진선식 회장으로 잘못 표기되어 이에 바로잡습니다. 에덴뉴스 편집실

최신의학정보



유방암 재발억제에 표적항암치료가 효과적

최근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암세포만 공격하여 환자들의 고통 줄여주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노바티스의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가 대표적이다. 아피니토는 암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물질을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로 기존 호르몬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한 폐경 후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 임상결과 항호르몬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암이 진행하지 않는 기간을 2배 이상 유의하게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능을 입증했다. 따라서 부작용과 고통이 심해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항암화학요법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또한 암세포가 장기로 전이된 정도가 심한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서도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성 있게 연장을 시켜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금 알갱이 이용한 항암백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지름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금 알갱이를 이용한 항암백신을 개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상용 KAIST 생명과학과 교수(사진)와 이인현 박사 연구팀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발표했다. 항암백신은 환자 고유의 면역세포를 체외에서 활성화시켜 다시 몸으로 투입해 암 면역력을 높이는 기술이다. 백신만으로 암을 제거하는 효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거나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항암제 치료 때 병행 활용하고 있다. 다만 환자 맞춤형으로 제조하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었다. 연구팀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 금 나노 입자를 활용했다. 금 나노입자 표면이 암 항원과 면역보조제를 결합해 백신을 만들었다. 이 백신은 입자가 작아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림프절로 쉽게 이동해 관련 항체를 생산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도 효과를 발휘했다. X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같은 영상기기를 이용해 금 입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백신이 목표한 조직에 잘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 교수는 "몸속에 투여한 백신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기존 백신에 비해 복잡한 제조 과정도 필요없는 것이 장점"이라며 "금 나노 입자 원

천기술은 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주요 사인 '위암' 억제 유전자 발견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위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 위암 예방과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김형진 박사팀과 서울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VDUP1 유전자'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 명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VDUP1 유전자'를 제거한 쥐를 대상으로 암 발생 유도물질을 투여한 후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켰을 때 정상 쥐보다 위암 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또 'VDUP1 유전자'를 과도하게 발현시켰을 때 각종 염증성 물질이 억제되어 위암 발생이 감소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 위암 발생이나 진행단계 예측은 물론 치료법 선택에 있어 환자의 'VDUP1 유전자' 분석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김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위암 예방은 물론 치료제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와 아들

75세 아버지와 50세 아들이 나들이를 나섰다. 길을 건너려는데 아버지 앞 "아가 길 조심 하게라!" "네 아버지" 산책용 마친 두 부자는 영화를 한편 보기로 했다. 아들이 돈을 내려고 하자 아버지는 한사코 본인이 돈을 내시겠다고 하신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이 양보를 하고 영화관 계산대 앞에 선 아버지, 돈을 내밀며 "어른(75살) 하나 아이(50살) 하나, 두장 주소~"

재미있는 웃음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이메일 : pr@edenah.com



건강을 위한 명상

건강의 원칙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고 그 거룩한 원칙을 우리의 생애에 실천 하자.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고치자. 이기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말자.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우월감을 가지지 말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시킬 때 평화와 안식이 그대에게 있을 것이다. 그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고, 모든 행동의 숨은 동기가 구주께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존한다. 그는 그의 생애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

- (청년 지도자, 1901년 9월 26일)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 도 중 한 -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면 더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살아 있는 동안 빛나는 승리의 기억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더욱 세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사랑은 옳았습니까

어제까지도 우리가 거친 바람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시다

더 많은 탐과 눈물이 필요한 때문이라 생각합시다 다만 내 손으로 내 살에 못을 박은 듯한 이 아픔은 잊지 맙시다

그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지 못해 살을 찢는 듯한 아픔으로 돌아서야 했던 것을 잊지 맙시다

아직도 때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